삼성, 내년 HBM 1위 전망… SK하이닉스와 주도권 경쟁 격화

카운터포인트·트렌드포스, 역전 예상
양사 점유율 격차 33%P서 17%P 축소
삼성, HBM4 매출 전분기比 3배↑
SK, 수율 개선·생산능력 확대 대응
고객사 확보·양산 효율이 승부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가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면서 양사의 시장 주도권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2027년 HBM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전자의 HBM4가 고객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트렌드포스도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가 2027년 HBM 시장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HBM4 공급 확대와 생산능력 확충을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 격차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에서 지난해 3분기 글로벌 HBM 시장 매출 기준 점유율은 SK하이닉스 56%, 삼성전자 23%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에는 각각 50%, 33%를 기록하면서 격차가 33%포인트에서 17%포인트로 좁혀졌다.

삼성전자는 HBM4를 앞세워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한 데 이어 3분기에는 HBM4 매출이 전 분기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HBM 매출에서 HBM4가 차지하는 비중도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삼성전자는 D램 생산능력이 큰 만큼 HBM 공급 확대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의 HBM 수요가 늘어나면 삼성전자가 공급 물량을 확대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전체 D램 시장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의 HBM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3분기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2027년 HBM 공급 목표 물량에 대한 가격 협상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제품인 HBM4E는 내년 상반기 양산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HBM4 수율 개선과 생산능력 확대로 시장 선두 유지에 나서고 있다. 올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HBM4의 전공정과 후공정 수율이 업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초 계획한 수율 목표를 웃돌면서 내부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올해 4분기에는 HBM4의 출하량과 매출이 모두 기존 주력 제품인 HBM3E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고객사들이 요청한 HBM 물량은 공급 가능 물량의 2배를 넘는다. 2027~2028년 전체 생산능력의 50% 이상에 대해서는 장기공급계약(LTA)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과 협의 중인 고객사 수요를 합산하면 2029년까지 D램과 HBM 물량이 사실상 완판된 상황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HBM 수요처가 확대되는 점도 시장 경쟁의 변수로 꼽힌다. 엔비디아가 주요 고객사로 자리 잡은 가운데 구글 등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업체들의 HBM 수요도 늘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2027년에도 엔비디아의 수요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ASIC 업체들의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양사는 HBM 수요 확대에 맞춰 고객사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7년부터 맞춤형 HBM 제품의 샘플 공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10월 30일 인사에서 개발총괄을 맡았던 안현 사장을 신설 미주총괄에 선임했다. 미국 주요 고객사와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삼성전자가 HBM4 양산과 공급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만큼 향후 시장점유율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건은 얼마나 빠르게 생산 물량을 늘리고 신규 고객사에 공급을 확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율과 양산 효율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더 빠르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울산항,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허브 도약

91만5000㎘ 저장시설 활용
LNG선 도입·메탄올 급유 확대
부산항 연계·북극항로 선박 유치


울산 북항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의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저장시설 전경. /KET

울산항이 기존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저장·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거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LNG 벙커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메탄올·암모니아 상업 급유를 확대하는 한편, 부산항 연계와 북극항로 선박 유치를 통해 벙커링 수요 확보에도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병호 울산항만공사 북극항로 TF 부장은 지난 6일 울산항 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통 연료를 포함해 친환경 선박연료 저장·공급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기존 에너지 시설과 배후 산업단지 수요를 활용해 신규 투자 부담을 줄이고, 울산항 저장 연료를 부산항 이용 선박에도 공급하는 기존 체계를 바탕으로 동남권 통합 벙커링 서비스를 구축해 친환경 선박연료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항 핵심 기반시설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정부의 동북아 에너지 허브 사업으로 울산 북항에 조성된 석유·LNG 복합 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52.4%)와 SK가스(47.6%)가 약 1조2000억원을 투입해 석유제품 탱크 12기(27만㎘)와 LNG 탱크 3기(64만5000㎘) 등 총 91만5000㎘의 저장시설을 구축했다. 모든 탱크의 이용·임대계약도 완료됐다.

이 인프라를 활용해 SK가스는 선박 간 이송(STS) 방식의 LNG 벙커링을 추진하고, KET는 부두와 LNG 연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도 SK가스와 벙커링 사업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2027년 하반기 LNG 벙커링선 도입을 목표로 공급체계를 준비 중이다.

메탄올·암모니아 등 대체 선박연료 공급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항은 지난 2023년 7월 A.P. 몰러-머스크의 2100 TEU급 컨테이너선에 그린메탄올을 공급하고, 11월에는 1만6200TEU급 선박에 STS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후 상업 벙커링 20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 준비 수준(PRL)은 7단계에 도달했다.

암모니아도 기존 액체화물 인프라를 활용해 공급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항은 연간 약 70만t으로 국내 암모니아 수입량의 60%를 처리하며, 지난 4월 벙커링 실증에 이어 10월 초대형 가스운반선 대상 상업 벙커링을 완료했다. 현재 PRL은 6단계로, 오는 2029년 7단계 도달을 목표로 공급체계를 구축 중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연료 공급시설 확충과 함께 벙커링 이용 선박을 늘리기 위해 북극항로 선박 유치에도 나섰다. 2016~2025년 북극항로 경유 울산항 입항 실적은 18항차(7만2874t)로, 올해 4항차가 추가돼 누적 22항차를 기록했다. 올해 입항한 4척 중 3척은 울산항에서 벙커링을 이용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북극항로 운항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 선사 로열 바겐보르그(Royal Wagenborg), 한국해양진흥공사와 3자 업무협약(MOU)을 맺고 운항 경험과 화주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 확보를 추진 중이다.

[이 기사는 (재)바다의품과 (사)한국해양기자협회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울산=유혜온 기자 dhaledhale@

LG AI연구원, 'K-엑사원 2.5' API 무료 개방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서 발표
독자 AI 모델 추가 학습해 성능 개선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인 'K-엑사원 2.5'를 무료 개방한다.

LG AI연구원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AI 데이 서울 2026'에 참여해 'K-엑사원 2.5'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PI는 K-엑사원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AI 모델을 직접 써보고 서비스에 적용할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K-엑사원 2.5'는 지난 8월 공개한 독파모 2차에 추가 학습을 적용한 기술 검증 모델이다.

LG AI연구원은 자체 평가 결과, 'K-엑사원 2.5'가 AI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스스로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 가중치 공개형 모델과 겨룰 만한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병원 맞춤형 '디지털 엑스레이'

천장형 신제품 'GC85A Fit' 선봬

삼성전자가 병원 환경에 맞춰 장비를 구성할 수 있는 천장형 디지털 엑스레이 신제품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는 천장형 디지털 엑스레이 'GC85A Fit'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플래그십 장비에 적용된 영상 처리 엔진과 AI 촬영 솔루션을 계승하면서 병원별 공간과 예산에 맞춰 장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GC85A Fit은 천장 레일과 촬영대, 디텍터 등을 선택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모듈형 설계를 채택했다. 의료기관은 검사실 구조와 진료 환경에 따라 필요한 장비와 기능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의료진의 조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체공학적 설계도 적용했다. '네오 다이내믹스(Neo Dynamics)'를 기반으로 경량 튜브 헤드 유닛(THU)과 장비를 원하는 위치에 고정하는 소프트웨어 디텐트(SW Detent) 기능을 탑재했다. 장비 손잡이의 커스텀 버튼에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지정할 수 있다.

AI 기반 촬영 보조 기능도 강화했다. '비전 어시스트(Vision Assist)'는 검사실 밖에서 환자의 촬영 자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원격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션 알람(Motion Alarm)'은 환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해 의료진에게 알려준다. 척추와 하지 등 장축 촬영을 위한 설정을 자동화하는 '비전 스티칭(Vision Stitching)'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 제어하는 'S-AEC(Smart Auto Exposure Control)' 기술도 적용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고 검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김동선, 사재 270억 들여 추가 공개매수

한화M&S 주가 급락에 대응
일주일 만에 338만주 추가 매입



김동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한화M&S·사진) 사장이 1차 공개매수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270억원 규모의 사재를 털어 추가 공개매수에 나선다.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코스피와 한화M&S 주가가 연일 급락하자 단일 최대주주로서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경영 의지를 재확인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동선 사장은 금융감독원에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한화M&S 보통주 약 338만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한다고 9일 공시했다. 매수 물량은 전체 발행주식의 4% 수준으로, 김 사장 개인자금 약 270억원이 투입된다. 공개매수 기간은 이날부터 이달 30일까지 22일간이며 매수 가격은 1차 때와 같다.

이번 공개매수는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다. 김 사장은 주가 하락과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주주 우려를 해소하고 책임경영에 나서겠다며 지난달 한화M&S 보통주 2620만3000주를 주당 8000원에 공개매수했고 목표 물량의 87.7%인 2297만5541주를 확보했다.

1차 공개매수 발표 이후 한화M&S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발표 직전 6080원이던 주가는 공개매수가 끝난 직후인 3일 7900원까지 뛰며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관희 기자 wkh@